

# 감염병 질환 예방

HAPPY  
Health Life



**보건복지부**  
MINISTRY OF HEALTH & WELFARE

철저한 위생관리로

감염병 질환을 예방합시다



감염병 질환 예방할 수 있다!

# 감염병 질환 예방

## 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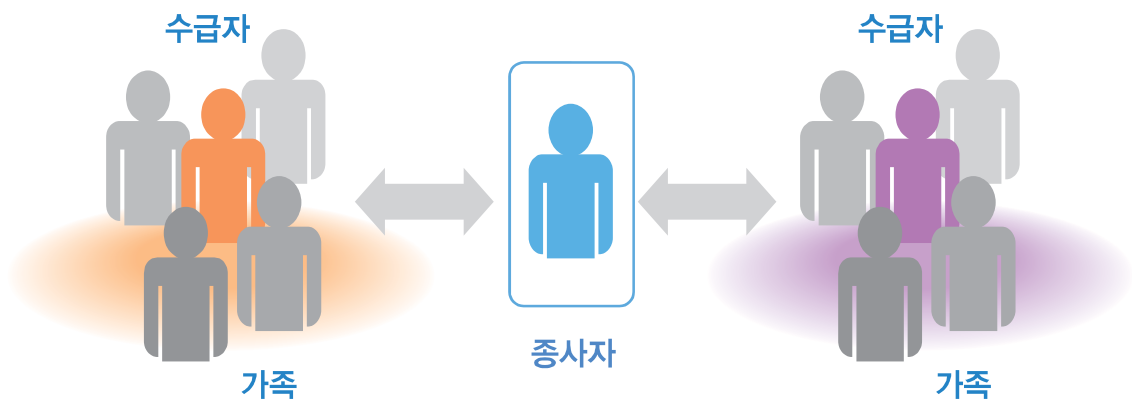
<b>I</b>	<b>감염관리의 필요성</b>	01
<b>II</b>	<b>감염관리 일반지침</b>	02
가.	손 씻기	02
나.	처치 및 관리시 주의점	04
다.	보호장구 사용	09
라.	감염성 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	09
마.	세척, 소독, 세탁물, 폐기물 관리	10
<b>III</b>	<b>감염질환 노출 시 조치</b>	13
가.	혈액이나 체액을 통하여 전파되는 바이러스 질환	13
나.	그 외 노출 되었을 때 조치가 필요한 질환	13
<b>IV</b>	<b>수급자 질환이나 증상에 따른 감염예방법</b>	14
가.	질환별 주의점	14
나.	증상별 주의점	16
<b>V</b>	<b>종사자 면역상태확인 및 예방접종</b>	18
가.	B형 간염	18
나.	A형 간염	18
다.	인플루엔자(독감)	19



# 감염관리의 필요성

##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

- 수급자는 오랜 지병과 병원입원 등으로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.
- 가족은 수급자와 가까이 생활을 함으로써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, 다른 사람에게 감염성 질환을 옮길 수 있습니다.
- 요양종사자는 수급자와 가족으로부터 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가 있으며, 또한 여러 대상자를 서비스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을 옮길 수 있어 감염예방과 관리에 대하여 알고 잘 지켜야 합니다.



# II

## 감염관리 일반지침

### 가. 손 씻기

수급자를 서비스하면서 손에 병원균이 오염되고, 오염된 손으로 준비한 약이나 음식을 통해 몸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킵니다. 따라서 손 씻기를 올바르게 하면 감염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#### 1) 손 씻기는 언제 할까요?

- 서비스를 시작할 때
- 음식이나 약을 준비하기 전
- 수급자에게 삽입된 관(소변줄, 배액관, 위 영양관 등)을 만지기 전과 후
- 혈액, 체액, 분비물(가래, 침 등), 배설물(대변, 소변 등)을 다룬 후
- 서비스를 끝낸 후
- 화장실 다녀온 후
- 음식 섭취 전, 자신의 눈, 코, 입 등을 만지기 전



## 2) 어떻게 씻나요?



### 올바른 손씻기 방법

**1**



손에 물을 묻히고 충분한 양의 비누를 받는다.

**2**



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찰하면서 문지른다.

**3**



손바닥으로 손등을 문지른다. 손을 바꿔서 행한다.

**4**



손가락을 깎지 끼고 손바닥을 문지른다.

**5**



손을 서로 맞잡고 손가락 뒷면을 손바닥에 문지른다.

**6**




엄지를 감아쥐고 회전 하듯이 문지른다. 손을 바꿔서 행한다.

**7**



손등을 손바닥에 마찰 하듯이 문지른다. 손을 바꿔서 행한다.

**8**



물로 손을 씻은 후 타올을 이용하여 수도꼭지를 잠근다.

## 3) 수급자는 언제 손을 씻나요?

- 대, 소변 본 후
- 음식 섭취 전
- 눈이나 코, 입을 만지기 전
- 상처나 배액관을 만지기 전과 후
- 외출 다녀온 후

## 나. 처치 및 관리시 주의점

수급자는 치료를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기구와 배액관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.



유치 도뇨관



수술상처 배액, 장루

### 1) 유치 도뇨관 관리

-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아랫배(방광위치) 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.
- 소변주머니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.
- 소변의 색깔이 변하거나 소변량이 줄거나 증가하는 경우는 의료진(의사(한의사 포함), 간호사, 간호조무사 등)에게 알립니다.
- 소변줄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합니다.
- 소변줄과 소변주머니의 연결 부위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, 소변이 새지 않도록 합니다.
- 소변줄 삽입부(회음부)는 하루 한번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씻어줍니다.
- 회음부위는 앞에서 뒤(항문방향)로 닦습니다.
- 소변줄이 막히거나 썬 경우, 오염이 심할 경우는 교체 (의료진(의사(한의사 포함), 간호사, 간호조무사 등)에게 알립니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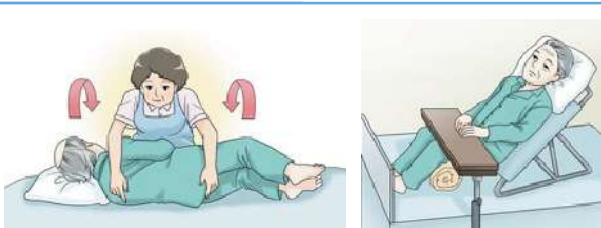
### 소변 비우기

<p>1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한다.</p>	<p>2 소변을 비운다.(소변 배출구가 소변통에 닿지 않도록 하여 비운다)</p>	<p>3 배출구 끝을 알코올 솜 등으로 소독 후 끼워 놓는다.</p>	<p>4 소변량을 확인한다. 소변을 비운 후 소변기는 물과 세제로 세척하여 건조시킨다.</p>	<p>5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.</p>



## 2) 수급자의 피부 관리

- 피부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히 유지합니다.
- 찰과상이 있을 경우 감염되기 쉬우므로 찰과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이나 목욕 등의 활동 시 반지와 같은 보석류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, 손톱을 짧고 둥글게 깎습니다.
- 욕창 예방을 위하여 시트는 주름 없이 잘 펴고, **주기적(2시간 마다)**으로 자세를 변경합니다.



### 체위 교환을 통한 같은 부위의 압박을 최소로 줄임

2시간 마다 체위를 바꾸거나 가급적이면 앉히도록 한다.



### 청결, 건조유지 및 자극을 피함

- 목욕을 통한 청결유지 및 기저귀를 자주 갈아 눅눅함을 방지한다.
- 잠옷, 시트는 잘 마른 것으로 주름이 없도록 하며 햇볕에 잘 말린다.
- 침상에 먼지나 음식찌꺼기를 제거한다.

## 주사부위와 상처(욕창, 수술부위, 배액관 삽입부위) 관리

- 의료진(의사(한의사 포함), 간호사, 간호조무사 등)의 지시에 따라 드레싱을 교환한다. 그러나 젖거나 더러워진 경우는 바로 교환한다.
- 드레싱을 하기 전 손씻기를 하고 장갑을 착용하며, 드레싱 후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.
- 물이 들어가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.
- 소독은 피부 소독제를 사용한다.
  - ▶ 포비돈 요오드
  - ▶ 알코올은 상처가 있는 곳에는 자극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는 의료진(의사(한의사 포함), 간호사, 간호조무사 등)에게 알린다.
  - ▶ 피부가 빨갛게 되며, 부종이 있는 경우
  - ▶ 고름이 나오는 경우



### 3) 영양공급, 약물 및 음식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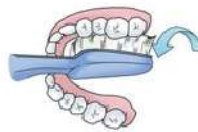
#### 경구 영양 공급

- 음식 준비 전과 음식을 주기 전에는 손을 씻습니다.
- 대상자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대상자의 손을 씻깁니다.
- 가능하면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여 **기도로 음식이 넘어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완전히 삼킨 것을 확인 후** 음식물을 제공하고 식사 후 30분 정도 **앉은 자세를 유지합니다. (흡인성 폐렴 예방)**
- 식사 후 대상자 및 보조자는 손을 씻도록 합니다.
- 매 식사 후 잇솔질을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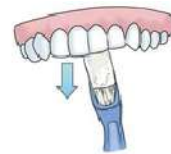
##### 어금니의 바깥쪽

어금니의 바깥면은 잇몸에서 치아가 난 방향으로 돌리며 닦아준다.



##### 어금니의 안쪽

어금니의 안쪽면은 잇몸에서 치아가 난 방향으로 돌리며 닦아준다.



##### 앞니의 안쪽

어금니의 안쪽면은 잇몸에서 치아가 난 방향으로 돌리며 닦아준다.



##### 어금니의 씹는 면

음식물의 씹는 면은 앞뒤로 왕복운동을 하면서 각 부위마다 10번씩 닦아줍니다.



##### 앞니의 바깥쪽

앞니의 겉면은 잇몸에서 치아가 난 방향으로 돌리며 닦아줍니다.



##### 윗니, 아랫니

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각부위마다 같은 동작으로 닦아준다.

## 약품관리

-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.
- 캡슐에 들어 있는 약은 미리 까놓지 않고 복용 직전에 까서 복용합니다.
- 시럽의 경우 계량컵에 약을 덜어서 복용시키고, 침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.
- 꺼낸 시럽은 다시 용기에 넣지 않습니다.
- 약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.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약은 복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.
- 장기간 사용하는 약은 개봉 일을 기록합니다.
- 개봉 후 가능한 빨리 사용하고 색깔, 냄새 등이 변질되었을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약품 전용용기에 보관합니다. (다른 약과의 오남용 방지)
- 안약, 귀약 등은 약 나오는 부분을 알코올로 잘 닦아 상온,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, 면봉에 묻혀 사용합니다.



## 음식물 관리

- 먹다가 남은 음식이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(뚜껑이 열려진채 보관, 실온에 장기간 두는 등)은 식중독이나 장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먹지 않도록 합니다.
- 음식물 보관 장소는 청소가 쉽고, 습기나 오염물과 떨어진 청결한 곳에 보관합니다. (벽, 바닥에서 15cm이상 간격)
- 식재료나 음식 보관용기에는 보관일자, 내용물, 유통기간 등을 표기합니다.

### 냉장고 관리

-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.
- 뜨거운 음식은 식힌 후 냉장고에 넣습니다. (뜨거운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온도를 상승시켜 나머지 음식을 상하게 합니다)

- 음식이나 식재료는 비닐에 씌우거나 뚜껑을 덮어 보관합니다.
- 냉장고 내에서도 세균이 증식하므로 섭취 전 세척하거나 씻도록 합니다.
- 냉장보관을 하더라도 유통기간을 반드시 준수합니다.
- 냉장고 온도는 1-4도를 유지합니다.
- 너무 많은 음식을 냉장, 냉동고에 보관하면 냉각 공기 순환에 방해가 되어 음식이 상하므로 공기가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.
- 냉동 음식을 해동하는 동안 세균 증식이 급격히 발생하므로 냉장고에서 해동하고 다시 냉동하지 않도록 합니다.



#### ❏ 식기, 도마, 칼 등 관리

- 식기는 세척하여 건조합니다. 매번 소독을 할 필요는 없으나 습도가 높은 기간이나 감염질환이 있는 경우는 소독합니다.
- 도마와 칼은 육류, 생선, 생야채, 익힌 야채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,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료에 있는 병원균의 오염 예방을 위하여 사용 후 바로 먹을 것과 사용 후 익힐 것으로 나눠 구분합니다. 색깔로 구분하면 편리합니다.
- 도마와 칼은 사용 후 세제와 물로 세척, 건조하며, 가능한 매번 소독합니다.
- 소독방법은 세척 및 소독 부분을 참조합니다.



## 다. 보호장구 사용

### 1) 장갑

- 수급자의 혈액, 체액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합니다.
- 일회용 비닐장갑은 재사용 하지 않습니다.
- 장갑이 찢어진 경우 바로 교환합니다.
- 장갑을 벗은 후 손을 씻습니다.

### 2) 마스크

- 공기나 호흡기 분비물(가래, 콧물)로 전염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.
- 마스크를 벗을 때는 마스크 앞을 만지지 않고 끈을 풀어 끈을 잡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.



### 3) 가운

- 피, 고름, 대소변 등의 분비물로부터 의복의 오염을 막기 위해 착용합니다.
- 가운이 찢어지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교환합니다.
- 일회용 비닐 가운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.

## 라. 감염성 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

### 1) 체액, 분비물, 배설물 등 관리

- 취급 전에는 반드시 장갑과 필요 시 가운,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
- 배액을 비울 때는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용기를 별도로 사용합니다.
- 배액은 오염물 폐기용 하수나 화장실에 버리도록 한다. 손을 씻거나 기구를 세척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세면기나 싱크대에는 절대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.
- 오염된 기구나 옷, 환경은 반드시 세척, 청소하고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합니다.

## 바닥에 쏟아졌을 때

- 종이나 천으로 흡수시킨다. B형 간염, C형 간염, 후천성면역결핍증 수급자의 혈액이 쏟아진 경우는 락스 10배 희석액을 위에 붓습니다.
- 새지 않도록 비닐에 흡수시킨 천이나 종이를 넣은 후 폐기물 처리합니다.
- 락스 100배 희석액으로 오염된 곳을 충분히 젖도록 한 후 잘 닦아냅니다.
- 만약, 천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주변 오염을 주의하며 비누로 세척 후 삶거나 세척제 용액으로 소독한다. 소독방법은 세척 및 소독을 참조합니다.

## 마. 세척, 소독, 세탁물, 폐기물 관리

## 1) 세척

- 사용한 기구나 물품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,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합니다.
-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모든 표면을 솔 등으로 문질러 꼼꼼히 세척합니다.
- 혈액 등의 오염이 심할 경우 효소세정제를 이용하면 제거가 용이합니다.

## 기구나 물품에 따른 소독/멸균이란?

- 소독 : 병원미생물을 죽이거나, 또는 반드시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활동하지 못하도록 감염력을 억제하는 조작을 말합니다.
- 멸균 : 물체의 표면 또는 그 내부에 분포하는 모든 세균을 완전히 죽이는 것, 즉 무균(無菌)의 상태로 만드는 조작을 말합니다.

## 2) 소독

- 소독 시간을 준수합니다.  
소독시간이 짧으면 세균이 남아있고, 너무 길면 물품이나 기구의 손상을 가져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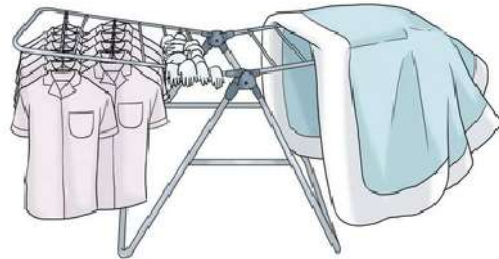
- 소독제가 기구나 물품에 충분히 접촉하도록 합니다.  
물품을 소독제에 잠기도록 하고 공기는 빼내도록 합니다.  
물품표면에 골고루 소독제가 묻도록 합니다.
- 한 수급자에게 사용한 후 다른 수급자에게 사용을 하는 기구나 물품은 반드시 소독하여야 합니다.

### 〈대상물에 따른 소독 방법〉

대상	소독방법
가습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일 모든 물을 비워내고 솔이나 천을 이용하여 물이 닿았던 부위를 문질러 물때를 제거하고 행군다.</li> <li>• 락스 1:100용액을 물이 닿는 모든 표면을 담그거나 젖도록 뿌린다.</li> <li>• 30분 후 물로 행구고 다시 사용하며,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건조시켜 보관한다.</li> </ul>
세면대, 욕조, 변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솔이나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문질러 물때를 제거한다.</li> <li>• 락스 1:200희석 용액을 모든 표면이 젖도록 문힌다.</li> <li>• 30분 후 물로 행군다.</li> </ul>
가구나 바닥, 문손잡이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급자의 분비물이나 배설물로 오염된 경우 사급암모늄 희석액(제조사 권장에 따름)을 표면이 충분히 젖도록 묻도록 하여 닦아낸다. 10~30분 후 깨끗한 걸레로 다시 닦아낸다.</li> <li>• 락스를 사용할 경우는 먼저 세제를 이용하여 바닥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. 락스 1:200희석액으로 다시 닦아낸다.</li> </ul>
식기, 수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인별 식기를 사용하며, 감염성 질환이 없는 경우는 세제를 이용한 세척만으로 충분하다.</li> <li>• 공용 식기나 감염수급자가 사용 한 경우는 열탕소독을 하거나 락스 1:200희석액에 30분간 담근 후 깨끗한 물로 행구고 건조한다.</li> </ul>
도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제를 이용하여 씻는다.</li> <li>• 열탕소독을 하거나 락스 1:200희석액에 10~30분간 담근 후 깨끗한 물에 행군 후 건조한다.</li> <li>• 담그기 어려우면 표면에 충분한 양을 뿌린 후 10~30분 후 행구고 건조한다.</li> </ul>
위관영양주머니와 튜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양액 주입 후 세제를 이용하여 씻어낸다. 솔질이 가능한 부위는 솔질을 하여 물때를 제거한다.</li> <li>• 1일 1회 락스 1:200 희석액을 채우고 10~30분 정도 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행군다.</li> <li>• 물기가 잘 빠지도록 수직으로 걸어 건조시킨다.</li> </ul>

### 3) 세탁물 관리

- 오염세탁물 : 법정감염병 수급자가 사용한 세탁물, 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 및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이 묻은 세탁물은 별도의 방수용기에 분리하여 세탁합니다.
- 가정에서의 오염세탁물은 락스, 삶음 등을 이용하며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솜이불 등은 일광소독을 충분히 시행합니다.



### 4) 폐기물 관리

- 수급자에게 사용된 물품, 분비물이 묻은 물품은 방수비닐로 1차 포장하여 10배 희석한 락스를 뿌린 후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합니다.
- ※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규정(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사용 등)에 따라 처리합니다.







## 감염질환 노출 시 조치

### 가. 혈액이나 체액을 통하여 전파되는 바이러스 질환

질환	노출 형태	조치방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B형 간염</li> <li>• C형 간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급자의 B형, C형 감염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: 감염에 우려가 없음</li> <li>• 양성자 : 감염 가능성이 있음</li> <li>•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: 감염 가능성 있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노출된 부위를 흐르는 수돗물에 충분히 씻습니다.</li> <li>• 상처가 난 부분은 소독한다.</li> <li>• 소속기관에 보고합니다.</li> <li>• 진료를 보고, 필요 시 검사나 투약을 합니다.</li> </ul>

- 진료 시 자신의 면역상태(B형간염 예방접종여부, 항체 보유여부)와 수급자의 검사 결과를 알고 있으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나. 그 외 노출 되었을 때 조치가 필요한 질환

질환	노출 형태	조치방법
디프테리아, 수막구균성 수막염, 백일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마스크 착용 없이 수급자를 1미터 내에서 돌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의사 진료 후 필요시 화학적 예방조치 필요</li> </ul>
수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같은 공간 내에 있었던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두를 앓았거나 예방접종을 한적이 없는 경우는 항체검사 및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</li> <li>타수급자 서비스 금지</li> </ul>

# IV

수급자 발생시 의료기관 연락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.

## 수급자 질환이나 증상에 따른 감염예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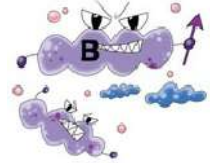
### 가. 질환별 주의점

#### 1) 호흡기 감염질환

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 준수 사항	청소 및 세탁
<b>수급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합니다.</li> <li>• 침 혹은 재채기 시 코와 입을 가리도록 합니다.</li> <li>• 비누로 자주 손을 씻도록 합니다. (특히, 기침 후)</li> <li>• 방이나 병실을 나올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</li> </ul> <b>서비스제공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급자를 만진 후, 수급자가 사용한 물품(옷, 이불, 휴지등)을 만진 후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.</li> <li>•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, 코막힘, 콧물 등)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, 증상 발생 시 의사와 상담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침대, 테이블, 화장실 등의 표면을 소독제로 깨끗이 세척합니다.</li> <li>• 수급자가 사용한 식기류, 세탁물 등을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으나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.</li> <li>• 수급자가 사용한 세탁물(수건, 이불 등)은 세탁 전에 끌어안아서 안되며, 일반 세제로 세탁합니다.</li> <li>• 세탁물을 만진 이후에는 바로 손을 씻습니다.</li> <li>• 식기는 식기세척기나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합니다.</li> </ul>

## 2) B형 간염, C형 간염

- 일상적인 생활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.
-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장구와 손씻기, 찔림사고에 주의합니다.
- B형 간염 수급자의 가족은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합니다.
- 의료기구 외 면도기, 칫솔 등은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수건이나 비누 식기, 수저 등으로 인하여 감염이 전파되지 않으며, 일반적인 세정이나 세탁과정을 거치면 됩니다.



## 3) 옴

- 수급자와 접촉할 경우 반드시 장갑과 긴 소매 가운을 착용하며, 치료 후 24시간까지 접촉주의를 준수합니다. 가피성 옴 수급자는 치료 후 4일간 접촉주의 지침을 지킵니다.
- 장갑을 벗은 뒤 손씻기를 수행합니다.
- 침상 주위의 물품이나 기구 접촉 시에도 주의합니다.
- 세탁물은 끓는 물에 삶아서 남아있는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
- 치료제 도포 시 주의사항
  - ▶ 처방에 따라 치료제를 바르고, 사용중이던 의복과 침구류 그대로 수면을 취한 뒤(치료제 도포 후 8시간이 지난 뒤) 다음 날 아침 샤워하고 사용했던 수급자복, 침구류, 수건, 양말 등은 모두 세탁합니다.
- 유 증상자 관찰
- 옴은 잠복기가 4~6주로 알려져 있으며, 가족이나 의료진(의사(한의사 포함), 간호사, 간호조무사 등) 중에 손, 손목, 팔꿈치, 배, 대퇴부, 전박에 가려움이 있는 발진 증상을 관찰하고, 유 증상자의 경우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.



## 나. 증상별 주의점

### 1) 기침 : 호흡기 위생과 기침 예절

- 기침, 재채기,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나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립니다. 사용한 휴지는 따로 폐기합니다.
- 기침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.
- 기침을 하는 수급자의 방문은 닫아두고, 다른 수급자와 적어도 1.5m이상 거리를 둡니다.
- 기침이 계속되고 가래와 열이 동반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.



### 2) 발진

- 발진은 접촉 및 공기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, 진료 전 수급자의 피부 병변을 만지지 않습니다.
- 발진 부위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.
- 발진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합니다.
  - ▶ 수포나 열이 나는 경우는 공기 및 비말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.
  - ▶ 가려움이 동반하는 경우는 옴과 같이 접촉을 통한 전파질환일 수 있으므로 장갑을 착용하고 병변 부위를 접촉하도록 합니다.
- 발진이 있는 수급자는 특히, 임신부와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.



### 3) 고열

- 열은 감염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.
- 체온이 섭씨 38도 이상인 경우를 고열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 노인이나 면역저하수급자의 경우 더 낮은 체온도 감염증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를 요합니다.



- 고열과 동반된 증상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합니다.
  - ▶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동반된 경우: 공기 또는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.
  - ▶ 고열과 발진이 동반된 경우: 공기나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.
- 고열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며, 처방 없이 해열제를 투여하지 않습니다.

#### 4) 설사

- 설사를 하는 경우는 다양한 장관계 병원균에 의한 감염일 수 있으므로 접촉주의 지침을 수행합니다.
- 설사수급자가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합니다.
- 설사하는 사람은 개인용 세면도구(수건 등)를 사용하도록 합니다.
- 수급자를 돌보는 사람이 설사를 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제한합니다.
- 수급자의 배설물을 접촉할 때에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, 장갑을 벗은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.(충분한 마찰)
- 배설물이 묻은 환경 표면은 소독제로 세척합니다.
- 배설물 및 사용한 쓰레기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립니다.

## 감염병 질환 예방





## 종사자 면역상태확인 및 예방접종

### 가. B형 간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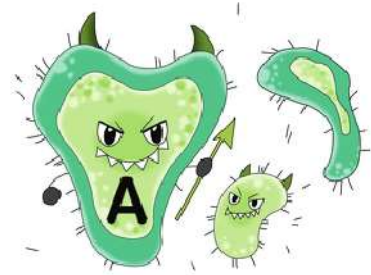
- B형 간염은 B형 간염 환자의 혈액이나 점막분비물에 접촉될 경우 전염될 수 있습니다.
-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경우는 증상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대상자가 B형 간염 환자(보유자)일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요양업무 종사자가 과거 3회의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.

### 나. A형 간염

- A형 간염은 A형 간염 환자의 대변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.
- 요양업무 종사자는 A형 간염 환자 등 대상자 접촉 전·후에 손씻기를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.
- A형 간염 환자와 접촉하는 요양업무 종사자는 2회의 A형간염 예방접종이 권장되며,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항체검사를 하여 음성인 경우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.

## 다. 인플루엔자(독감)

-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며, 인플루엔자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(기침, 가래, 콧물 등)과의 접촉으로 감염되고, 겨울철에 주로 발생합니다.
-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수급자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요양업무 종사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이전인 매년 10~12월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.





## 감염병 질환 예방

발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

문의처 :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-9 국민건강보험공단

대표전화 : 1577-1000

발행일 : 2011년 11월